김 정 일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정 일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0월 10일

오늘 우리 당은 창건 4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창건을 선포한 때로부터는 45년이 되지만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첫 당조직이 무어진 때로부터는 60년이 지났고 《ㅌ.ㄷ》의 기치밑에 당의 력사적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는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당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비상히 풍부하고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쌓은 세련되고 로숙한 당입니다.

장구한 기간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온 당의 창건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특별히 높은 긍지를 가지는것은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고있는것입니다. 세계에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들이 많지만 당의 창건자를 모시고 반세기이상 투쟁의 길을 걸어온 당은 없습니다. 우리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우리 당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60여성상 변함없이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더없는 영광이며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있으며 자기 두리에 인민대중을 튼튼히 묶어

세우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얼마나 높고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이 얼마나 공고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당의 투쟁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높은 신뢰는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과 주체혁명위업의 정당성, 주체의 당건설리론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됩니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조건입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승리하자면 과학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여야 합니다. 과학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은 로동계급의 당에 의하여 제시됩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

대중이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조직된 부대로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승리할수 있습니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하나의 전투대오로 묶어세우는 사업은 로동계급의 당에 의하여 수행됩니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해방위업을 위하여 조직적인 투쟁에 나선 첫 시기부터 그 투쟁을 이끌어줄 정치적참모부를 요구하였습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맑스는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세계에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들이 수많이 출현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은 당의 령도밑에 개척되고 발전되여왔습니다.

공산주의운동력사는 로동계급의 당의 투쟁력사입니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전위적당을 대표자로 내세우고 혁명투쟁력사를 창조합니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입니다.

당의 성격과 특징은 당이 무엇을 위하여 투쟁하며 어떤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됩니다.

당의 위업은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방향을 규정합니다. 우리 당의 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주체위업입니다. 주체위업을 완성하는것은 우리 당의 투쟁목적이며 숭고한 사명입니다.

지도사상은 당의 로선과 전략전술의 사상리론적기초로 됩니다. 옳바른 지도사상에 기초할 때에만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이 작성될수 있습니다. 지도사상은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의 사상적기초로 됩니다. 옳바른 지도사상에 기초한 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만이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로 됩니다. 우리 당의 지도사상은 위대한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우리 당이 건설되고 당의 위업이 개척되여왔습니다.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다는데 우리 당의 특성이 있으며 그 위대성과 불패성의 원천이 있습니다.

맑스에 의하여 처음으로 조직된 로동계급의 당은 맑스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였습니다. 맑스주

의는 레닌주의에 의하여 계승발전되였으며 대부분의 로동계급의 당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맑스-레닌주의가 나온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는 변하고 혁명은 전진하였으며 그에 따라 맑스-레닌주의는 력사적제한성을 나타내게 되였습니다. 맑스-레닌주의의 력사적제한성은 당건설리론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당건설리론도 유물사관에 기초하여 전개하였습니다. 맑스주의유물사관은 사회를 토대와 상부구조로 구분하고 토대에 규정적의의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물사관의 원리로부터는 혁명의 주체에 관한 사상과 혁명의 주체에서 핵심적력량을 이루는 로동계급의 당에 관한 리론이 옳게 해명될수 없습니다. 물론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도 로동계급의 해방투쟁에서 당이 노는 역할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일련의 당건설원칙을 밝히였습니다. 그러나 선행한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은 그 기초로 된 사회력사원리의 제한성으로하여 당의 사상건설원칙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제대로 밝힐수 없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람들이 모인 정치적조직이며 그 사업대상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건설원리는 마땅히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전개되여야 합니다. 특히 사람의 모든 활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되는것만큼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는 사상론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의 원리를 새롭게 밝히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을 독창적으로 전개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되는 주체의 당건설원리가 밝혀지게 되였습니다.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의 제한성은 이 리론이 의거한 사회력사원리의 제한성과 함께 시대적조건과 실천적경험의 제한성과도 관련됩니다.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은 시대적제한성으로 하여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자주적으로 당을 건설하는 길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에 의하여 국제당이 조직되고 개별적나라들에서의 당건설사업이 주로 국제적중앙에 의하여 지도되던 시기에는 자주적인 당건설의 길이 제

대로 열릴수 없었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초창기에는 아직 여러 민족국가들에 독자적으로 로동계급의 당을 건설하고 혁명을 이끌어나갈수 있는 공산주의핵심이 준비되지 못한 조건에서 개별적나라들에서의 당건설위업은 국제적중앙의 지도나 큰 나라 당의 방조밑에 진행되는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것으로 인정되였습니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은 자주적으로 건설되여야 합니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자주적인 령도적정치조직이기때문입니다. 공산주의운동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발전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일떠선 새로운 력사적환경은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하며 당건설도 자주적으로 해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중앙의 지도나 큰 나라 당의 방조밑에 기성의 경험과 틀에 매여 당건설사업을 진행하던 낡은 관념은 좀처럼 극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도 교조주의, 사대주의에 물젖은 종파분자들은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앉아 제가끔 《당》을 만들어가지

고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요구를 통찰하시고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서시여 자주적인 당건설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우리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새로운 주체형의 당으로 건설하시였습니다.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은 실천적경험의 제한성으로 하여 당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줄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기 로동계급의 당의 창건은 통례로 소수 공산주의선구자들로 공산주의소조들을 뭇고 그에 기초하여 당중앙을 조직하고 당창건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습니다.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또한 각이한 력사적조건에서의 당건설경험을 쌓을수 없었습니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로동계급이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을 벌리던 혁명단계의 력사적조건에서 활동하였으므로 집권당건설경험을 쌓을수 없었습니다. 레닌이 처음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을 령도하였으나 그 경

험은 집권당건설리론을 체계화하기에는 너무나 미숙하였습니다.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은 그 창시자들의 제한되고 미숙한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한 것이기때문에 전면적으로 완성된 당건설리론으로 될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의 창건으로부터 공고발전에 이르는 당건설의 전과정을 조직령도하시면서 독창적인 경험을 쌓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기성의 당창건방법과는 달리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뭇고 그것을 모체로 각지에 당조직들을 확대하시면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은 토대우에서 당을 창건하시였으며 이 과정에 기층당조직을 비롯한 각급 당조직을 조직지도하는 풍부한 경험을 쌓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당을 창건하신 다음에도 당세포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에 자주 내려가시여 몸소 지도하시면서 당사업경험을 발전풍부화시키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지하혁명투쟁과 항일무장투쟁으로부터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각이한 혁명단계와 투쟁조건에서의 당건설경험을 쌓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몸소 이룩하신 다

양하고 풍부한 당건설경험에 기초하여 당건설리론을 새롭게 체계화하시였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의 풍부한 집권당건설경험에 기초하여 집권당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독창적인 당건설리론과 전통을 순결하게 계승하면서 그것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켰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창시되고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발전된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혁명의 새로운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된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당건설리론이며 각이한 혁명단계와 투쟁조건에서의 당의 모든 활동경험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된 백과전서적인 당건설리론입니다. 주체의 당건설리론에 의하여 선행시기 당건설리론에서 제기되지 않았거나 예견할수 없었던 수많은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이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튼튼히 틀어쥐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여 건

설되여야 합니다.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여 당을 건설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고유한 특징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란 수령의 사상체계이며 령도체계입니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관한 리론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사회적집단안에서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운동일반에서 나서는 문제이지만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공산주의운동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공산주의운동은 다른 사회적운동과는 달리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된 근로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이며 조직적인 운동입니다.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 고도로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운동으로서의 공산주의운동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가장 높이 체현한 탁월한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서만 발전할수 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맑

스-레닌주의창시자들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수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령의 역할을 사회적운동일반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이나 로동운동의 책임적인 지위에 있는 지도간부들의 역할과 별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로동계급의 수령의 역할문제를 사회력사적운동에서 노는 개인의 역할과 다름없이 보았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유물사관의 원리에 의하면 개인의 역할은 그 활동을 제약하는 물질적 및 사회적관계에 많이 의존되는것으로 됩니다. 이러한 유물사관의 원리에 기초하여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가 옳바로 해명될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수령이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개인이 아니라 계급의 최고대표자입니다. 개인은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사회적집단의 운명을 개척하고 로동계급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합니다.

선행리론에서 수령의 역할문제를 탁월한 개인의 역할문제로 보게 된것은 사회적운동일반에서와 같이 수령의 역할문제를 주로 지휘에 관한 문제로 본것과도 관련됩니다.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지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 최고뇌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산주의운동에서는 혁명대오가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룹니다. 계급적대립이 없어진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온 사회가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유기체에 모든 생명활동을 지휘조절하는 뇌수가 있듯이 사회정치적생명체에는 그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하는 뇌수가 있어야 하며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뇌수의 역할은 수령이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운동과 사회주의사회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비로소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습니다.

사회정치적생명체의 공고성과 생명력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보장되여야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이룩되고 사회정치

적생명체의 운명이 빛나게 개척되여나갑니다.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그 성원들의 의사는 수령에 의하여 집대성되며 그 성원들의 행동의 통일은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실현됩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기초하여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주체의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제시된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원칙입니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전당에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그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대중적당으로 건설되여야 합니다.

소수 착취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부르죠아정당과는 달리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로동계급의 당은 대중적

당으로 건설되는것이 합법칙적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을 대중적당으로 건설하는것은 당의 사회계급적 지반이 비할바없이 확대된 새로운 력사적시대에 와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물론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지 못한 조건에서는 적아간의 력량관계에 따라 대중적당을 건설하는데서 일정한 제한성을 가질수 있으며 따라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사업을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으면 당을 대중적당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조건이 더욱더 유리하게 마련됩니다. 특히 사회주의혁명이 수행되면 각이한 계급, 계층의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 과정에 사회성원들의 사회경제적처지가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되여나가므로 당의 사회계급적지반은 더욱 확대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의 당이 반드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하는 대중적당으로 건설되여야 합니다.

대중적당건설은 당의 로동계급적, 혁명적성격을 확고히 고수하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는것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당을 대중적당으로 건설한다고 하여 당에 아무 사람이나 망탕 받

아들이고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는데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는다면 당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할수 없고 당이 전투력있는 부대로 될수 없으며 결국 혁명의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할수 없게 됩니다. 우리 당은 한때 당문을 마구 열어놓으려고 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배격하고 당장성사업에서 혁명적조직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당핵심을 많이 육성하며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당을 질적으로 공고화하는 사업을 중요하게 내세우고 그것을 강하게 밀고나갔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로동계급적성격을 확고히 보장하고 당대렬의 량적장성과 질적공고화를 밀접히 결합시켜 대중적당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당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강유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켰습니다.

지난 시기적지 않은 집권당들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당을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당들은 당의 질적공고화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고 당에 아무 사람이나 망탕 받아들였으며 당내교양사업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당이 시련을 겪을 때 적지

않은 당원들이 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당은 당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참다운 대중적당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최근 일부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파괴되고 공산주의자들이 소수 정치집단의 처지에 빠지게 된 주되는 원인의 하나가 바로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지 못하고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참다운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전투적당으로 건설되여야 합니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치렬한 계급투쟁을 이끌어나가는 전투적무기이며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조직령도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무정형적인 집단이 되여서는 안되며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전투적부대로 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온갖 기회주의당과 구별되는 주요한 특성의 하나가 바로 전당이 전일적으로 조직화되고 유일적인 규률에 의하여 한결같이 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이라는데 있습니다.

조직화되고 규률있는 당을 건설하는데서 나서

는 중요한 원칙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입니다. 맑스-레닌주의는 당의 조직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일반적인 규범을 밝혔습니다.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중요한 요구는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아래당조직은 웃당조직에, 전체 당원들과 당조직은 당중앙에 복종하며 기층당조직으로부터 당중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당조직들의 지도기관을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모든 당원들이 당활동과 관련한 창발적인 의견을 충분히 제기할수 있게 하는것입니다.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정확히 구현하자면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근본요구, 중앙집권제와 민주주의의 결합방식이 옳게 규정되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주체의 당건설리론에 의하여 비로소 뚜렷이 밝혀졌습니다. 당의 중앙집권제는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며 당내민주주의는 수령의 사상과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한 당원대중의 창의창발성을 발양시키기 위한것입니다. 중앙집권제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중앙집권제를 확고히 보장하는 조건에서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는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당안에서 중앙집권제를 떠난 민주주의를 허용하는것은 결국 당안에 부르죠아자유주의를 끌어

들이고 당을 무정형적인 조직으로 전락시키는것입니다.

당의 규률은 당원들의 높은 조직관념과 자각성에 기초한 규률이며 유일적인 당생활규범에 기초한 규률입니다. 우리 당은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원들의 당조직사상생활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전당에 유일적인 당생활규범에 기초한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웠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 기초하여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정확히 구현하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함으로써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당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할데 대한 주체의 당사업리론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떠밀어나가는 주체는 인민대중인것만큼 로동계급의 당은 마땅히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기적지 않은 당들은 선행당건설경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심화발전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더우기 당안에 기회주의가 침습되면서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과는 배치되게 당사업을 행정화하는 편향이 나타나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할수 없게 되였으며 당을 약화시키고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 다시말하여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간부사업체계, 당원들의 당생활지도체계, 군중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웠습니다.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의 사상과의 사업입니다. 사람의 사상과의 사업이란 사람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의 사상을 발동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고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에 기

초한 혁명적인 내용으로 일관되게 하였으며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당과 혁명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할수 있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며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게 됨에 따라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의 본질과 원칙으로부터 그 방법에 이르기까지 당의 령도문제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의 본질을 정확히 규정하고 혁명적인 령도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로 규정함으로써 당적지도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행정화하는 편향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적령도와 혁명적군중로선을 결합시키는것을 당적령도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지도와 대중을 옳게 결합시키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위원회를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 그 활동에서 집체적지도를 보장하게 함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지도의 통일성과 대중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을 밀착시킴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였습니다. 혁명의 주체가 비상히 강화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자랑찬 현실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길만이 당이 자기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워야 합니다.

사업 방법과 작풍 문제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대중을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는데서 그 성

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확하게 세워져도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이 나쁘면 그 관철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습니다. 사업 방법과 작풍 문제는 집권당건설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으면 혁명적세련이 부족한 일군들속에서 모든 문제를 대중에 의거하는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거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집권당이라고 하여 당권을 가지고 휘두르며 관료주의를 부리고 세도를 쓰면 인민의 지지를 받을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옳바로 령도할수 없습니다.

최근에 일부 나라들에서 적지 않은 군중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속아넘어가 로동계급의 당과 정부를 반대하여나선것은 바로 당이 정권을 잡고있다고 하여 관료주의를 부리고 세도를 쓴데로부터 인민의 신뢰를 잃었기때문입니다. 원래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에게 있어서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자신의 당이며 따라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이 당을 반대하는것은 결국 자기자신을 반대하는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당이 사업 방법과 작풍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대중으로부터 리탈되고 나중에는 대중의 배척을 받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당은 당건설의 전과정에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 전당에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며 그것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입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는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상하가 합심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늘 현실에 깊이 들어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불러일으켜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우리 당은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와 세도를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려왔습니다. 우리는 간부대렬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혁명적단련이 부족한 일군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조건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한 투쟁에 더 큰 주의를 돌렸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놓고 모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일군들속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인민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인민대중을 이끌어나가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서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료주의와 세도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하게 벌려나가고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발전에서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은 공산주의운동과 로동계급의 당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장기적으로 진

행되며 공산주의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도 대를 이어 계승되여야 합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로동계급의 당을 대를 이어 강화발전시키지 못하면 혁명이 진통을 겪게 되며 중도반단되고 좌절되게 된다는것을 쓰라린 교훈으로 보여주고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는 혁명위업계승문제,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이 장기성을 띨것으로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사적소유와 계급적대립이 청산되고 계급적차이가 없어지면 혁명이 끝나고 국가도 점차 조락되는것으로 보았으므로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를 제기할수 없었습니다.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란 당의 정치적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후계자를 내세우고 그의 지도체제를 세우는 문제입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혁명을 개척한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수령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후계자를 내세우고 그의 지도체제를 철저히 세워야 당이 변질되지 않고

당의 위업이 끝까지 수행될수 있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교훈은 후계자를 옳게 내세우지 못하거나 또 후계자를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의 지도체제를 바로세우지 못할 때에는 배신자들에 의하여 당이 롱락되고 그 위업이 파탄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으로부터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리론실천적으로 빛나게 해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습니다.

참으로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으로 됩니다.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경험과 당의 령도밑에 이룩된 우리 혁명의 빛나는 승리와 성과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전면적으로 확증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은 그와 어긋나는 그릇된 요소

와의 심각한 투쟁을 동반하였습니다. 한때 우리 당안에서도 당의 중요한 직위에 기여들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전통적인 주체의 당건설원칙을 위반하고 외부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그릇된 당사업방법을 끌어들여 부식시켰습니다. 우리 당은 온갖 불건전한 요소를 배격하고 주체의 당건설원칙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을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일심단결되고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강철의 당으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발전시켰습니다. 우리 당은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당을 우리 식대로 건설하여왔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그 어떤 공격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불패의 힘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주체의 당건설리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교훈에 의하여서도 반증되고있습니다. 많은 나라 당들이 교조주의, 수정주의에 빠져 당건설을 잘하지 못함으로써 시련과 곡절을 겪어왔으며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로동계급의 당이 완전히 녹아나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

졌습니다. 계급적원쑤들과의 대결전에서 적지 않은 사회주의나라 로동계급의 당들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 주되는 원인은 이 나라 당들이 옳은 당건설리론을 가지지 못하고 당을 튼튼히 꾸리지 못한데 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이 제한성을 가지고있는데다가 적지 않은 당들이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교조주의적으로 매달리다보니 당건설리론을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변천되는 시대와 전진하는 혁명의 요구에 맞는 전투력있는 당을 건설할수 없었습니다.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이 제한성을 나타내게 되고 당건설리론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혁명과 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발전완성되지 못한것을 기화로 현대수정주의가 로동계급의 당을 변질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에 대한 태도문제는 기회주의와의 투쟁에서 중심문제의 하나로 되여왔습니다. 력사상에 나타난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은 례외없이 정치적참모부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을 변질약화시키고 개량주의당으로 전락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을 변질시키려는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은

현대수정주의의 대두와 함께 더욱더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당이 건설되고 강화발전되는 합법칙성을 부인하면서 로동계급의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었습니다. 수정주의의 반동적본질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는것입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로동계급의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음으로써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먹칠을 하고 수령의 사상과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업적과 전통을 거세말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기회주의, 개량주의 당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것은 현대수정주의자들의 가장 추악한 배신행위입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당의 로동계급적성격을 부인하면서 《전인민적당》에 관한 리론을 들고나와 당을 계급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원래 당은 일정한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로서 출현하였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이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가운데서 우수한 선진분자들

로 이루어집니다. 로동계급적성격, 혁명적성격을 떠나서는 로동계급의 당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결코 《전인민적당》으로 될수 없습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전인민적당》에 관한 리론을 들고나온것은 당의 로동계급적성격을 거세함으로써 사실상 계급의 선봉대로서의 당을 없애자는 책동이였습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당의 사상적전일성을 부인하고 당안에 이색적인 사상조류를 마구 끌어들임으로써 당의 사상적기초를 허물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안에는 로동계급의 사상만이 있을수 있으며 당안에 부르죠아사상을 끌어들이면 당이 사상적으로 와해되기마련입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사상교양사업을 소홀히 하였을뿐아니라 당안에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고 부르죠아사상의 침습에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안에 각양각색의 주의주장이 대두하게 되고 부르죠아사상이 범람하게 되였으며 당이 사상적으로 와해변질되게 되였습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당안에 중앙집권적규률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당을 조직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당안에 초보적인 당생활체

계도 세우지 않았으며 무규률과 무질서를 조장시켰습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특히 당안에서 분파활동을 허용함으로써 당을 사분오렬시켰습니다. 당안에서 분파활동이 허용되면 당이 조직된 부대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습니다. 적지 않은 당들이 당의 조직사상적통일을 이룩하는데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을뿐아니라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당안에서 분파활동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파벌에 의하여 당의 조직적기초가 허물어지고 우연분자, 정치적사기군들에 의하여 당이 롱락당하게 되였으며 외부세력이 당안에 반대파세력을 부식시키고 그들을 부추겨 당의 지도부를 뒤집어엎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였습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정치적참모부로서의 당의 본성에 어긋나게 당을 행정기관화, 권력기관화함으로써 그 대중적지반을 약화시켰습니다. 당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정치조직이며 따라서 당사업방법은 행정식방법이 아니라 설복과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적방법으로 되여야 합니다. 당은 군중우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민의 복무자이며 따라서 당의 사업작풍은 관료주의와 세도가 아니라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인민적인 사업

작풍으로 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당들이 당을 행정기관화, 권력기관화하고 행정식방법과 관료주의, 당세도를 허용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리탈되게 되였습니다.

1950년대중엽에 대두한 현대수정주의는 수십년동안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으며 심각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력사의 교훈은 간고한 투쟁의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던 로동계급의 당도 수정주의를 허용하면 결국 파멸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혁명이 전진함에 따라 로동계급의 당의 사회정치적지반이 공고발전되고 그 지위와 역할이 강화되는것이 합법칙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의 지위와 역할이 저절로 강화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로동계급의 당은 당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야 자기의 령도적지위와 역할을 높일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이 오래 계속됨에 따라 사람들속에서 혁명성이 약화되고 안일해이한 현상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

성으로부터 나오는것이 아니라 낡은 사상잔재가 되살아나는데서 생기는것입니다. 낡은 사상잔재가 매우 뿌리깊고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가 끊임없이 감행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사회에도 불건전한 사상이 되살아날 위험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하지 않고 물질적자극을 절대화하면서 물질생활 한면만 내세우면 사람들속에서 자기 혼자만 편안히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며 여기에 발붙이고 낡은 사상이 자라날수 있습니다. 낡은 사상에 제일 오염되기 쉬운 사람들은 새세대들입니다. 착취와 압박도 받아보지 못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은 안일과 향락만 추구하는 자본주의사상에 쉽게 물들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나라 당들에서 당원들의 대부분은 혁명승리후 자라난 세대들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회주의나라 로동계급의 당들은 수정주의의 영향으로 당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옳게 벌리지 못하였으며 결국 당자체를 변질시키는데까지 이르

게 되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현대수정주의에 의하여 변질되게 된 근본원인은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간고한 투쟁속에서 혁명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여온 탁월한 령도자가 당의 수위에 있을 때에는 당이 건전하게 발전하였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남에 따라 이미 오래전부터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가 제기되였으나 그것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의 지도적 지위를 새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한 령도자들이 내놓은 혁명적인 로선과 정책을 수정하고 그들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주의는 끊임없이 발전하며 그 전진도상에 새롭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이 제기되지만 혁명의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그 종국적승리에 이르는 전행정에서 선행시기의 업적과 경험을 계승하고 발전풍부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준엄한 시련을 뚫고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과정에 영원히 귀감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혁명전통이 이룩되며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이 마련됩니다.

이러한 당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부인한다는 자체가 벌써 당의 변질을 의미하는것입니다. 간고한 투쟁속에서 창건되고 발전되여온 당의 계승성을 부인하는자들은 례외없이 혁명의 배신자들입니다.

오늘 세계의 진정한 혁명가들이 우리 당에 커다란 존경과 신뢰를 표시하는것은 바로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당과 그 위업을 드팀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기때문입니다. 사회주의위업이 파탄되고있는 동유럽나라들과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상반되는 현실은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가 사회주의위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현대수정주의에 의하여 변질되게 된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사대주의를 한데도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운동은 자주적인 운동이며 주체를 세우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생명입니다. 공산주의운동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을 저애하는 기본사조는 사대주의입니다. 원래 사대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좀먹는 반혁명적사조입니다. 공산주의운동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자체의 힘으로 실

현하기 위한 자주적인 운동인것만큼 공산주의운동안에서 사대주의는 절대로 허용될수 없습니다. 사대주의는 수정주의사상,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혁명적독소를 끌어들이는 안내자입니다. 적지 않은 나라 당들은 사대주의에 빠지다보니 수정주의를 가려보지 못하고 덮어놓고 받아물게 되였으며 나중에는 자본주의사상까지 끌어들이게 되였습니다. 사대주의에 빠지면 옳고그른것을 가려볼수 없을뿐아니라 외부의 압력도 물리칠수 없습니다. 지난날 현대수정주의자들이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할 때 일부 당들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문것도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사대주의를 하였기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나라 당들이 사대주의를 하면서 남을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커다란 피해를 본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사대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남을 덮어놓고 추종하였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사대주의병에 걸린 여러 나라 당들이 남이 《개편》놀음을 벌리면서 압력을 가하자 거기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같이 《개편》놀음을 벌리다가 녹아났습니다.

지난 시기 여러 나라 당들이 떠받들던 큰 나라가 오늘 현대사회민주주의의 진흙탕속에 빠져 미

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로골적으로 공모결탁하면서 혁명을 배신하고있는 조건에서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는것은 더욱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어제날 사회주의성새라고 하던 큰 나라가 오늘은 70여년간 자기 인민이 피와 땀으로 이룩해놓은 혁명의 전취물마저 송두리채 말아먹는 형편이니 원쑤와 손을 잡고 벗을 팔아먹는것쯤은 식은죽먹기로 여기고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한길에서 어깨겯고 싸우던 일부 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미제와 한짝이 되여 남조선괴뢰들과 손을 잡고 우리 인민까지 팔아먹으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팔리운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팔리우지 않을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 당이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운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현대수정주의에 의하여 변질되여온 과정은 혁명적원칙을 저버리는 과정이였습니다. 원래 수정주의란 혁명적원칙을 거세하는 반혁명적사조입니다. 혁명적원칙을 지키는가 버리는가 하는것은 혁명적당과 기회주의당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됩니다. 혁명적원칙을 버리고 계급

적원쑤들과 타협하는것이 기회주의의 본색입니다. 혁명적원칙을 하나하나 양보하면 당이 본래의 면모를 견지할수 없으며 결국 변질되고맙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적원칙을 지킨다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혁명의 근본리익을 고수하며 그에 기초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벌려나간다는것을 말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적원칙을 지키는것은 그 사명으로부터 나오는 근본요구입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당의 위업은 자주성을 유린하는 온갖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수행됩니다. 계급적원쑤들은 혁명이 전진할수록 혁명을 파괴하기 위하여 더욱더 발악하게 되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이룩될 때까지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혁명적원칙을 버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혁명적원칙에서 하나를 버리게 되면 둘을 버리게 되고 점차 모든 원칙을 다 버리게 되며 나중에는 당과 혁명 자체를 말아먹게 됩니다. 동유럽 여러나라 당들에서 벌어진 사태가 이것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압력밑에 혁명적원칙을 하나하나 양보하고 부르죠아자

유화바람에 문을 열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양보가 점차 확대되여 나중에는 혁명의 근본원칙마저 포기하고 당과 그 위업을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에게 송두리채 팔아먹는데까지 이르게 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 당도 혁명적원칙에서 리탈시키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혁명적원칙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원칙을 저버리려는 자그마한 요소와도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한 현대수정주의자들이 당의 령도를 약화시키고 당을 말아먹고있을 때 우리 당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드팀없는 혁명적원칙성으로 하여 우리 당은 그 어떤 원쑤도 범접할수 없는 백전백승의 위력을 지닌 위대한 당으로,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으로 자랑떨치게 되였습니다.

현대수정주의에 의하여 오랜 기간 진행된 당의 체계적인 변질과정은 현대사회민주주의가 대두함에 따라 조직적인 붕괴에로 넘어가게 되였습니다.

현대사회민주주의는 《개편》의 간판밑에 자본주의에로의 복귀의 길을 열어놓고있습니다. 《개편》

정책의 제창자들자신이 자기들이 가는 길이 이른바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고 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 같은 사회를 만드는것이라는것을 숨기지 않고있습니다. 현대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운동안에 침습한 부르죠아사상이라는 점에서는 현대수정주의의 연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민주주의는 현대수정주의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가장 반동적인 변종입니다. 수정주의는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 대한 수정을 통하여 그 혁명적진수를 거세하는 반혁명적사조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민주주의는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수정하는데 머무르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해나섭니다.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이행》전략을 집행하면서 그것을《민주주의적사회주의》, 《인도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 《현대민주주의》, 《민주주의적공민사회》와 같은 여러가지 간판으로 감싸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자본주의에로의 평화적이행》을 추구하는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가운데는 각이한 정치세력과 류파가 있습니다. 그들가운데는 어제날의 대지주, 자본가들과 그 후예들을 비롯한 계급적

원쑤들이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운동안에서 사상적으로 변질타락하여 그 무슨《제3의 길》에 대한 어리석은 환상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길에 들어선자들이 있습니다.《제3의 길》을 위한《개편》을 떠벌이는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가운데도 각이한 주의주장을 내세우는 여러가지 류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주장은 어떻든《개편》을 부르짖으면서《제3의 길》을 꿈꾸는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평화적이행》전략을 집행하는 혁명의 추악한 배신자들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데서 처음에는《제3의 길》을 꿈꾸는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을 여러가지 감언리설로 꾀이다가 사회적혼란이 격화되는데 따라 사회주의를 완전히 전복하는데로 우익반동세력을 추동합니다.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말살하고 자본주의를 되살리기 위하여 공격의 예봉을 돌리는 첫째가는 대상은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력량인 로동계급의 당입니다.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당을 파괴하기 위하여 인민들속에서 당에 대한 신뢰를 허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여왔습니다. 그들은 로동계급의 당을 공격하기 위하여 당안에서 나타난 결함을 악용하였습니다. 물론 로동

계급의 당은 당안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제때에 극복하여야 하며 관료주의와 세도, 부패현상과 같은 불건전한 현상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안에서 결함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것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당내투쟁을 통하여 극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은 당안에서 관료주의와 세도, 부패현상과 같은 결함이 나타나자 때를 만난듯이 《공개성》의 간판밑에 그것을 당을 공격하는데 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안에서 나타난 결함이 마치도 당의 령도적지위와 당건설의 혁명적원칙자체로부터 나오는것처럼 날조하면서 당의 령도적지위와 역할을 거세하고 당을 파괴하는데로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일부 로동계급의 당들에서 나타난 결함은 당의 본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입니다. 사실 로동계급의 당들이 혁명의 전위부대로서의 자기의 사명에 맞게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켰더라면 그러한 결함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은 당안에서 나타난 결함을 과장날조하면서 당을 악랄하게 공격하였으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음모적방법으로 차지한 당의 지도적지위를 리용하여 당의 령도를 완

전히 거세하고 당을 파괴하기 위한 반혁명적로선을 조직적으로 내리먹였습니다.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은 당은《립법기관선거의 테두리안에서 자기의 정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느니,《정경분리》를 하여야 한다느니 하면서 사회주의국가와 행정경제기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해나섰으며 당과 사회단체의 그 무슨《동반자관계》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사회단체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세하였습니다.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은 군대와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독재기관의 비정치화를 주장하면서 이 기관안에서의 당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반혁명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은《공개성》의 간판밑에 사상문화생활을 완전히 로동계급의 당의 통제밖에 두고 부르죠아사상문화를 전면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모든것은 로동계급의 당을 사회에 대한 아무런 령도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려는 흉악한 반혁명적책동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입니다. 사회제도와 정치방식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는 정당들의 지위와 역할을 서로 달리 규정합니다. 한

줌도 못되는 착취계급이 정치를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정당들이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겉으로는 부르죠아정당들이 자본주의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것 같이 보이지만 정치를 조종하는것은 정당이 아니라 독점자본가들입니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도 정당도 억만금을 독차지한 독점자본가들의 의사에 따라 움직입니다. 독점자본가들은 정당이 없이도 국가를 통하여 자기의 정치적지배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독점자본가들이 정당을 필요로 하는것은 저들의 부르죠아독재를 정치적으로 뒤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폭력정치를 가리우기 위한 연막으로 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본주의이전의 착취사회에는 이러저러한 정치분파가 있었지만 정당자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착취사회가 자본주의에로 이행하면서 자본가들은 부르죠아민주주의를 분식하기 위하여 의회제와 함께 정당제도를 들고나왔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류력사에 존재한 모든 착취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이며 사회주의는 정치방식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사회주의정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

의 민주주의정치이며 그것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는 로동계급의 당에 의하여 대표되며 집대성됩니다.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로 됩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되여야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적특성과 관련됩니다. 로동계급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를 가장 높이 체현한 선진계급이며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혁명의 령도계급입니다.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은 모든 피착취, 피지배 계급과 계층을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로 보나 로동계급의 계급적특성과 력사적사명으로 보나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령도적역할을 하는것은 합법칙적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거세하는것은 결국 사회주의자체를 말살하는것으로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말살하고 자본주의를 되살리기 위하여 혁명

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세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것입니다.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당으로부터 령도적지위를 떼내고 당을 보잘것없는 야당으로 전락시키기 위하여 다당제를 들고나왔습니다. 원래 다당제는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정당제도이며 철두철미 자본가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제도입니다. 부르죠아다당제는 사람들이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분화되고 계급적으로 대립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의 계급관계의 반영이며 자본주의통치배들의 전횡을 《민주주의》보자기로 감싸기 위한 연막입니다. 자본주의사회의 각이한 계급과 계층사이에는 평등한 관계가 있을수 없고 오직 지배와 복종의 관계만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정당사이에도 평등한 관계란 있을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특권적지위를 차지합니다. 자본가들은 저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들의 특권적지위를 가리우고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기 위하여 다당제의 간판을 내거는것입니다. 독점자본가들은 다른 정당이 자기의 리익을 위협할 때

에는 그 활동을 억제하고 탄압하며 나중에는 폭력으로 해산해버리는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부르죠아민주주의가 소수 착취자들에게만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는 가짜민주주의인것과 마찬가지로 부르죠아다당제는 부르죠아반동정치를 은페하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 사회계급적특성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은 다당제가 허용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로 계급적대립이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다당제를 실시할 사회계급적기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어긋나게 다당제를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인위적으로 분렬시키고 반혁명분자들에게 공공연히 활동할수 있는 정치무대를 마련하여주는것으로밖에 다른것으로는 될수 없습니다. 물론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는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정당과 함께 다른 정당이 존재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들은 결코 집권경쟁을 위한 정당으로 될수 없으며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친선적으로 협조하는 당으로 되여야 합니다. 이것은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의

근본리익이 일치하여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 요구입니다. 다당제를 제창하는것은 결국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거부하며 사회주의를 파괴하고 자본주의에로의 복귀의 길을 열어놓으려는 반혁명적 책동입니다.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당으로부터 령도적지위를 빼앗아낼뿐아니라 당을 내부로부터 파괴하고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이른바 《당의 개편》을 들고나왔습니다. 《당의 개편》이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의 초보적인 규범마저 집어던지고 당안에서 무제한한 《민주주의》와 《공개성》, 《개방성》을 조장하며 기층당조직들을 상급당조직의 그 어떤 지도통제도 받지 않는 《자립적단위》로 전락시킴으로써 사실상 조직된 부대로서의 당을 파괴해버리려는 반혁명적책동입니다. 《당의 개편》을 부르짖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이미 로동계급의 당이 정치무대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며 남아있는 당들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고말았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파괴되자 그 대신 무슨 동맹이요, 무슨 로조요, 무슨 연단이요 하는따위의 반동적인 정당, 단체들이 득세하고 정

권이 우익반동들의 수중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포기하고 로동계급의 당을 파괴하는것이 결국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파괴하는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에 의하여 오늘 사회주의위업은 심각한 좌절과 시련을 겪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력사적로정에서 일시적으로 겪게 되는 좌절과 시련이며 종국적승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편에 있습니다. 인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일부 나라들에서 일어나고있는 자본주의복귀소동을 놓고 사회주의가 망하였다고 환성을 올렸으나 이 나라들이 겪고있는 파국적인 위기앞에서 벌써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있습니다.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혁명적책동은 전면적인 파탄을 면할수 없습니다.

지금 자본주의복귀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은 심각한 정치적위기와 경제적파산, 사회적혼란을 겪고있으며 완전히 무정부상태에 빠지고있습니다. 날로

심화되여가는 이 위기는 그 어떤 자본주의적처방도,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도 멈춰세울수 없습니다.

인민들은 벌써 자본주의복귀가 자기들에게 자유도 유족한 생활도 가져다줄수 없으며 가져다주는것은 오직 실업과 빈궁, 사회적혼란과 범죄뿐이라는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쓴맛을 보고있는 인민들은 자기들을 달콤한 말로 꾀이던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이야말로 민주주의자도 인도주의자도 아니고 제국주의의 사환군이며 인민의 배신자라는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인민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두 제도를 대비하여보고 사회주의시대를 그리워하면서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을 반대배격해나서고있습니다.

오늘 사회주의가 겪고있는 좌절과 시련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습니다. 불의의 사태에 부닥쳐 위축되였던 적지 않은 공산주의자들이 점차 사태의 진상을 깨닫고 새로운 투쟁대오를 결속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로동계급의 당을 새로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쓰라린 교훈을 통하여 어제날의 수정주의적인 당이 아니라 새로운 혁명적인 당을 세워야 하겠다는것

을 자각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혁명의 기치,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기상과 모습에서 고무를 받고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투쟁경험에 더욱더 낯을 돌리고있습니다. 새로 자라나는 공산주의혁명대오는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이행》전략과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의 온갖 반혁명적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국제무대에서 진보와 반동, 혁명과 반혁명 사이에 치렬한 대결전이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당앞에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가야 할 영예로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우리 당과 우리 나라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임무는 매우 무겁고 우리의 투쟁은 의연히 간고합니다.

오늘의 엄혹한 정세속에서 우리는 결코 평탄한 길을 따라 쉬운 방법으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성과가 크지

만 자만할 근거는 없으며 지금까지 해놓은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당의 전투적위력과 그 령도적역할을 어떻게 높이고 대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안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 세도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할것입니다.